

2025년 6월 8일 “(주님을 아는 지식 11) 한결 같은 사랑으로”(출 34:5-9)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만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새 민족의 죄

인간은 연약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오해나 반감이 생겨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앗수르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분노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스페인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준과 충돌할 때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평생 배워가야 할 진리입니다.

출애굽기는 단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한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신정국가로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과 국가적 차원에서 왕-백성과의 관계를 맺는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산에 오래 머무르자 백성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조급함 속에서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아론은 그들에게서 금고리들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우상을 향해 “이것이 우리를 구해낸 신이다”라고 외치며 광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신정국가가 아닌 일개 우상숭배의 나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깊이 상심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배신당한 아버지의 아픔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고도 한순간 다른 사람을 향해 가는 것과 같은 배신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진실하게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셨습니다.

[2] 아픔 속에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이런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숨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며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실 때 두려워서 숨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숨는 모습은 아버지에게 큰 아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제사를 받아 주시지 않아서 분노하여 아벨을 죽였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버림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를 등지고 떠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건은 많았습니다. 므낫세 왕은 우상 숭배와 무고한 피 흘림 등 많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앗수르에 포로로 잡혀가 고통받는 중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위에 복귀시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를 이끄는 사랑의 또 다른 방식이며, 최종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한 가닥 희망을 두고 모세를 지켜 보셨습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한 백성을 심판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초반에는 매우 단호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함께 가겠다”고 응답하시며 다시 십계명을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철저한 배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를 다시 끌어안으십니다. 바보처럼 보일 만큼 한결같고 풍성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드는 힘이 되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어떤 이유로 그 사랑을 외면하거나 거부하게 될까요?
2. 금송아지 사건을 볼 때 우리 삶에 그런 위험은 없을까요?
3. 하나님의 사랑이 ‘회개만 하면 받아주는 바보 같은 사랑’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나요?